

# 다저스, NL 서부지구 우승... 류현진 4년만에 가을야구



“잘했어” LA다저스 선수단이 2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 결정전에서 승리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5일부터 홈서 애틀랜타와 디비전시리즈... 류현진 2선발 유력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워커 블러의 호투와 홈런 2방으로 콜로라도 로키스를 무너트리고 6년 연속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 정상에 올랐다. 다저스는 2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타이브레이크 경기에서 콜로라도를 5-2로 제압했다. 이 경기로 2013년부터 6년 연속으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정상에 선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 3승제)에 직행,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맞붙는다. 콜로라도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밀려났다. 다저스와 콜로라도는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162

경기를 모두 마칠 때까지 선두를 가리지 못해 추가 경기인 타이브레이크를 벌였다. 선발로 나선 신에 우안 블러가 승리를 이끌었다. 블러는 6.2이닝 동안 안타 1개만 허용하고 3볼넷 3탈삼진 무실점으로 콜로라도 강타선을 꽂고 묶었다. 블러는 타석에서도 6회말 적시타를 때리는 등 2타수 1안타 1타점 1볼넷으로 활약했다. 타선은 시원한 홈런포로 블러의 호투에 보답했다. 4회말 2사 1루에서 코디 벨린저가 우중간 담장을 넘겼다. 5회말에도 맥스 먼시의 좌중간 2점포로 4-0으로 달아났다. 6회말에는 2사 2루에서 블러가 우전 적

시타를 때려 썩기를 막았다. 콜로라도는 9회초 놀런 에러나도의 솔로포로 침목을 깬다. 에러나도는 다저스 마무리 켈리 안션을 상대로 때린 시즌 38호 홈런으로 내셔널리그 홈런 1위도 확정했다. 다음타자 트레버 스토리도 '백투백' 솔로포를 날렸지만 안션이 이는 추격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다저스는 승리를 지켰다. 한편 다저스를 가을 잔치로 이끈 괴물 투수 류현진(31)이 4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등판한다. 미국 언론은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의 말을 인용해 류현진이 NLDS 2차전에 등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의 빌 플링킷 기자는

“NLDS 1~2차전에 클레이턴 커쇼, 류현진 순으로 선발 등판하느냐”고 묻고 “아마도 보는 대로”라고 답한 로버츠 감독의 답변을 트위터에 적었다. 온라인 매체 ‘트루 블루 LA’의 기자인 에릭 스티븐도 트위터에서 “로버츠 감독이 공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커쇼가 1차전, 류현진이 2차전에 등판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NLDS 1~2차전은 5~6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다. 3~4차전은 8~9일 애틀랜타의 홈인 선트러스트 파크에서 벌어지고, 5차전은 다시 다저스타디움에서 11일에 열린다. 류현진이 6일 등판하면 2014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NLDS 이래 4년 만에 가을 잔치 마운드에 선다.



라커룸에서 동료들에게 삼페인 세례를 받으며 기뻐하고 있는 류현진.

/연합뉴스



## “내가 걷는 길, 후배들에 이정표 뒀으면”

**KIA 임창용 시즌 5승·통산 130승**

최고참 불펜, 시즌 중 선발 변신  
이닝·투구수·QS 차례로 목표 이취  
체력적 한계 우려, 실력으로 씌어  
“나이 상관없이 실력으로 기회 가져야”

실력으로 보여준 임창용이 ‘베테랑의 길’을 묻는다. KIA 타이거즈의 임창용은 지난달 29일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 6이닝 2피안타 1볼넷 6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을 하면서 시즌 5승에 성공했다. 이 승리로 임창용은 통산 130승을 기록했다. 임창용은 이날 경기가 끝난 뒤 ‘10번째 선발 등판’을 언급하면서 “오늘만큼은 잡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앞선 두 차례 한화전 선발 등판에서의 부진을 털어내고 싶었던 임창용에게는 선발이라는 자리에 맞는 실력을 보여주고 싶던 경기이기도 했다. 불펜에서 시즌을 시작했던 임창용은 지난 7월 20일 kt 위즈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선발로 보직을 옮겼다. 오랜 시간 불펜 필승조로 활약한 ‘최고참’ 선수의 선발 변신은 화제가 됐다.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임창용은 10번의 선발 등판을 통해 ‘5이닝’, ‘승리’, ‘투구수 100개’,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라는 목표를 차근차근 달성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임창용은 “사실 처음 선발을 하게 됐을 때 할 수 있을까 의심도 있었다. 하지만 기회가 온 것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했다. 처음에는 투구수 100개를 던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다. 2차로는 퀄리티스타트를 해보고 싶었다”고 돌아봤다. 퀄리티스타트를 넘어 6이닝 무실점이라는 더 높은 지점까지 오른 임창용이지만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야시안게임 휴식기에 앞서 치른 두 번의 등판에서 5이닝 8실점, 1.2이닝 8실점으로 연달아 무너지면서 선발 자리가 위태로워졌다. 보름가량의 휴식기가 임창용에게는 전환점이 됐다. 임창용은 “보름 정도 쉬면서 못 했던 것을 할 수 있었다. 체력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6이닝 이상 던질 수 있는 체력을 만들고, 100개 이상을 던져도 힘이 안 떨어지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쉬는 기간 체력에 집중한 임창용은 휴식기 이후 처음이자 6번째 선발 등판이었던 9월 6일 넥센전에서 첫 퀄리티스타트에 성공했다. 그리고 9월 23일 한화 원정에서 4.1이닝 4실점으로 주춤했지만 9월 4경기에서 모두 6이닝을 책임지면서 KIA의 순위 싸움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임창용은 “선발로 초반에 안 좋았을 때 보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는데 믿고 기용해주신 감독님과 코치님에게 감사하다.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 후배들도 내 등판 날 집중해서 해줘서 고맙다”며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팀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고 웃었다. 우려의 시선을 실력으로 씌어낸 임창용은 치열한 경쟁의 무대에서 고민하며 살고 있는 다른 베테랑

의 길이 되는 또 다른 꿈을 꾸다. 임창용은 “(예전에는 후배들의 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베테랑들의 길이 되고 싶다. 우리 사회는 능력으로 판단해야 하는 데 나이로 사람을 평가한다”며 “언제 운

동이 그만뒀어 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사는 베테랑들이 마음 놓고 운동하면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프로다. 프로는 실력이다.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

## 공 맞은 이명기 “주먹 날아오는 줄 알았어요”

**덕아웃 T 특목**

▲직구 시인만 내던데요 = 김운동은 9월 마지막 경기였던 한화전에서 9회초 등판, 6-4의 리드를 지키며 시즌 4번째 세이브에 성공했다. 3타자를 상대하면서 14개의 공을 던졌던 김운동은 모두 직구만 구사했다. 김운동은 “(김)민식이 형이 직구 사이만 내더라”며 웃은 뒤 “역전하고 나서 마운드에 올랐는데 분위기가 넘어왔다는 게 느껴졌다. 상대 분위기도 가라앉아있었고 자신 있게 공을 던졌다. (김)선빈이 형이 수비도 잘해줬다”고 미소를 지었다. ▲엔트리에 없는 줄 알았어요 = 동생 유민상의 도발이었다. KIA와 NC는 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올 시즌 마지막 16차전을 치렀다. 두 팀이 맞붙을 때마다 ‘형제의 대결’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KIA 외야수 유민상과 NC 투수 유원상은 형제. 2차 드래프트를 통해 kt에서 KIA로 이적한 유민상이 올 시즌 백업 멤버로 기회를 얻으면서 두 형제의 맞대결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유민상은 올 시즌 NC전 4경기에서 나와 10타석에 섰지만 형을 상대하지는 못했다. 2일 훈련이 끝난 뒤 ‘형제의 맞대결’에 대한 질문을

받은 유민상은 “형이 엔트리에 없는 줄 알았다. 잊고 제 거의 한 달 만에 등판하더라. 만나면 남자답게 공을 넘기겠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주먹으로 맞는 기분이었어요 = 이명기의 오른 쪽뺨에 ‘영광의 상처’가 생겼다. 이명기는 지난 9월 30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0-1로 뒤진 2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좌측 안타로 출루에 성공했다. 투수 견제구가 빠진 사이 2루까지 진출했던 이명기는 이범호의 좌익수 플라이 때 3루까지 향했다. 하지만 좌익수 양성우가 던진 공이 바운드 된 뒤 이명기의 얼굴에 맞으면서 잠시 경기가 중단됐었다. 큰 이상이 없어 자리를 지킨 이명기는 김민식의 우익수 플라이 때 홈에 들어왔다. 득점에는 성공했지만 얼굴에는 멍과 함께 흉터가 생겼다. 2일 훈련 시간 김기태 감독은 “달걀로 마사지를 해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명기는 “주먹으로 맞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눈 쪽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같은 날 한화 선발 김성훈이 던진 공에 허벅지를 맞았던 최형우는 이날 훈련 시간에 바지를 걷어 올리며 김민호 수비 코치에게 항의(?)했다. 김성훈은 김민호 코치의 아들이다.

/김여울 기자 wool@